경계 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
: 이승윤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정진주*

올해 연구소에서 여러 차례 돌봄공론장을 개최하여 돌봄노동에 관한 책을 주로 읽었고 이 책 중 한 권을 골라 서평을 쓰려고 했다. 그런데 이미 지난 서평 두 편이 돌봄노동과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선택해서 서평을 쓸까 고민하다 눈에 들어온 책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승윤 지음, 문학동네, 2024)이었다. 저자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었고, 사실 나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을 실제 연구하고, 변화를 위해 실천의 기회가 있을 때 옆에서 자그마한 역할도 했으나 직업상 최근 8년간 우리 사회 노동과 건강에 관한 개인의 깊숙한 이야기를 검토하고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수행했던 터라 당분간은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힘든 이야기가 담긴 책을 서평을 쓰기 위해 다시 들춰 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서평을 써야 하는 시기에 우리 사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새벽배송으로 죽어가는 노동자였다. 플랫폼 노동자로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새벽배송을 하면서 과로사로 숨진 사건이 연달아 터진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의 과정은 매우 슬프게 진행되는데 노동계와 직업환경전문의는 야간·새벽 근무가 건강에 유해함을 주장하는 반면 일부 새벽배송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새벽배송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양측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정작 새벽배송의 책임이 있는 기업은 아무 말이 없이 대리전이 펼쳐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불안정노동이 기술발전과 맞물려 알고리즘에 의해 일감을 맡는 배송과 배달 노동의 심각성과 불안정성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 저자는 대형마트 규제처럼 새벽배송을 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원치 않는 새벽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즉 안정된 임금과 노동계약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첫째, 솔직하다. 개인 연구자로서의 경험과 안정된 연구자로서의 위치성과 불안정노동 연구자로서의 긴장 관계를 솔직히 토로하며 독자로 하여금 함께 성찰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나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과정과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자주 공유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제된 논문이나 책도 중요하지만 연구 주제는 왜 선택되었는지, 연구 과정에 무엇이 있었는지, 연구 대상과의 경험은 어떠했는지, 연구 결과에 숨겨진 내용은 무엇인지 등이 이야기될 때 학문으로서도 실천으로서도 연구가 성장한다고 믿어왔다. 책의 각 장은 연구 노트이자 연구 결과물로도 볼 수 있는데, 불안정노동의 현실과 해당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적어놓아 연구자로서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울산에 대량 해고로 실업자가 발생했을 때 연구차 내려갔다

* 사회건강연구소 (E-mail: cjinjoo@gmail.com)

https://doi.org/10.23163/KJHE.PUB.4.1.157

가 왜 실업자가 아닌 하청노동자로 연구 대상이 바뀌었는지, 왜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가 아닌 산재 이후 유가족은 어떤 과정을 경험하는지에 대해 연구했는지 등의 선택은 동료 연구자뿐만 아니라 특히 노동 분야의 점점 적어지는 후세대 연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를 줄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삶에 대해 공감과 이해하려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연구가 수행되고 결론이 맺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저자는 연구에서 거시와 미시적 접근, 양적 연구(통계)와 질적 연구(현장 참여, 인터뷰 등)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방법론이 각 주제의 연구를 수행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책상에 앉아서 수집된 수치를 기반으로 통계를 돌리고 숫자의 늪에 빠져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연구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물론 실제 저자가 쓴 논문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더욱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불안정노동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만날 수 있다. 표준화된 노동에서 불안정성을 특성으로 하는 '액화노동'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이 책의 정의에 따르면 액화노동은 비표준적, 비정형적인 노동형태를 포괄하고 여기에는 비정규직, 하청노동,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 긱노동, SNS 크리에이터, '세분화된 일감을 맡는'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노동이 포함된다.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 여러 주제를 다루어주니 노동의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핵심적인 특성인 불안정성과 주류적인 사회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는 특성을 읽을 수 있다.

「1부 격랑의 노동현장,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불안정노동을 하는 사람은 시간 사용에 있어 빈곤하고 소득도 빈곤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현실을 분석하며 이들을 보호할 사회보장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기술발전과 전자상거래 대중화, 온라인 쇼핑 증가와 함께 성장해온 택배배달산업은 저렴한 가격, 신속한 배송, 최선의 신선도를 통해 고객 만족을 우선하며 경쟁체계에 들어섰다. 장시간 노동, 고정 야간노동, 원래 업무가 아닌 추가적인 분류작업 등에 시달리는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고, 일부는 자차 소유의 종속적 자영업자로 일한다. 대개는 일·가정 양립 불가능, 휴일 부족으로 노동권과 건강권 모두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건강권이 훼손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나 불안정노동자 중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한 사람이 많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빈발한 현실을 지적하며, 산재 이후의 유가족의 간절한 이야기가 통계수치로만 드러나지 않고 제도적 보상이면 끝이라는 생각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종속적 자영업자인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를 통해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다 이를 연장하려고 할 때 정치적 반대에 부딪치는 과정을 설명하며 사업주 기여금 산정이 매출 등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세를 통한 기본소득과 고용형태가 아닌 소득보험이 2차적 안전망으로 작동해야 함을 주장한다.

「2부 노동자가 쓰러진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에서는 먼저 아프면 왜 가난해지는지를 분석한다. 휴가제도가 없어 아파도 버티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실업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만 상병수당 제도가 없기 때문으로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몸뚱이를 상품화한 사회에서 벗어나자고 주장한다. 울산의 구조조정위기 발생으로 실업보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려다가 지역의 막강한 하청구조를 보며 하청노동에 대한 연구로 전환한 후 목격한 사실은 물량은 더 많아지고 인건비는 저하되고 산재사고는 원청보다 더 많은 현실이다. 쌍용자동차의 집단 해고 초기에 나도 이 연구를 수행했었는데 한국은 개별해고는 어려운 반면 집단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상황이다. 해고 기준이 불명확하고 집단해고 시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제도가 상한액 설정이 타 국가에 비해 낮아 소득대체율이 낮고, 사회안전망 부족과 내부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복직만이 답이 된 상황이 초래되어 노동자들이 해고 투쟁에 나선 과정을 자세히 분석했다. 또한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분들이

학교 내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일하고 있는 현실, 임시일용직인 중년층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 건강 보호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3부 청년 노동, 누가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청년을 정체성의 차원에서 한 세대로 보았을 때 내부의 다양성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대론이 기술발전, 글로벌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별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세대만을 주요 기준으로 하는 과도한 일반화는 경계한다. 청년 내부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계급과 젠더 등의 차이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청년 중에 소수의 목소리만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언론과 청년 정체성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사실은 중산층 이상일 수 있다는 것, 중산층 이상에게 적용될 수 있는 능력주의와 공정성이 전체 세대에게 적용되어 불안정노동이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고용·직업훈련에 모두 속하지 않는 청년) 처지에 있는 청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저자는 연구를 통해 2002년에 비해 안정된 청년 계급과 매우 불안정한 청년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다. 청년세대의 불안정성은 생애주기에서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청년 집단 내의 연대나 복지국가 체제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불확실해졌다.

이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 부처에서 역할을 맡아 활동한 경험이다. 연구결과가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자 역시 정책연구자로서 연구와 실천의 다리를 놓고 싶어 했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 등 여러 역할을 맡은 경험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정치적 맥락에서 최선의 정책보다는 당장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결정되는 '시그니처' 정책을 내놓으라는 압박, 민관협치라는 이름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표시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만 면피용으로 작동할 위험성을 간파했고,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맡지만 결과가 기대된 것이 아니어서 소진되는 경험들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권한 있는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넓은 들판의 잔디가 퍼져가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다는 저자의 말은 한자리 차지하겠다고 여의도에 줄 선 전문가가 200명이 넘는다는 소문과 대비되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정부 내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4부 경계에서의 고민」에서는 연구자로서의 여러 고민을 토로한다. 개인적으로 많은 연구자가 이 장을 꼭 읽어보길 권한다. 우리 스스로는 연구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반추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과 현실의 간극, 연구자의 계급과 불안정노동자의 계급이 다른 데서 오는 타자화된 시각, 수치 뒤에 숨겨진 현실의 이해, 통계의 늪에 빠진 연구, 여성 박사와 남성 박사의 소득 격차와 이면에 숨겨진 현실, 여성 연구자로서 경력과 연구에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남성 연구자보다 인정을 받지 못한 경험, 진보라고 자처하는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돈의 유혹 및 처신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대학에서 정규직으로 있는 교수의 경우 특권 대신 학문적 엄격함을 취해야 함을 강조하고, 다양한 네트워크와 정보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주류로 편입하면서 자신들의 계급적 위치로 인해 연구하는 취약 노동자에 대한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류화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이익, 그리고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현실 세계에 대한 감각의 손실 사이에서 손익분기점은 어디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저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연구자를 면밀히 살펴보며 나온 성찰이라 여겨진다.

마지막 장에서 저자는 표준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제도와 복지정책에서 벗어나는 길로 정규직, 비정규직, 액화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연대를 강조했지만 연대의 가능성은 열어두되, 그 연대의 현실화는 다수의 노동

이 불안정노동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매우 낮다고 보았다. 표준적 노동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제도와 사회보장 정책이 불안정성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노동과 일감을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의 미래는 밝지 않을 것이다. 저자도 이미 얘기했듯이.

저자의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보자면, 노동 문제를 노동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영역과도 연계해보면 좋을 것이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노동자의 문제가 노동과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소비의 차원에서 적정 소비가 무엇인지, 지구를 살리는 소비는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그러한 삶의 양식을 노동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규직 연구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계급적 위치로 인해 취약한 노동자라는 연구 대상을 이해하기 위한 감각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단지 성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는 투자라고 하고, 아주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살며 억대 자가용차를 굴리면서, 내 자녀만은 예외라고 사교육 시장에서 훈육시키는, 또 과시소비가 만연하는 생활을 하면서 취약한 노동과 사회불평등을 연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한다. 연구자의 성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말과 실천이 되도록 일치하는 연구자로서 살 수 있지 아니한가?

이 책은 노동과 건강 분야 전문가, 노동과 건강 분야에 입문하는 연구자, 우리 사회 노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 급변하는 불안정노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는 정책 형성자, 정치인들 모두가 읽어보았으면 한다. 전 사회적 양극화, 한 세대 내에서의 불평등, 불안정노동의 다양성, 표준화된 노동과 다양한 액화노동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통합적이고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